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보도	'21.1.19.(화) 15:00	배포	
책임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욱(02-2100-2860)	담당자	이영민 사무관 (02-2100-2865)	

**제 목 : 「산업·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」을 통해
반도체 산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,
1,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가 조성됩니다.**

- 1월 19일(화), SK하이닉스와 '해외 M&A·투자 공동지원 협의회' 금융기관(산·수은·농협은행)간 「산업·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」 개최
- ① SK하이닉스와 해당 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('21~'25년) 글로벌 미래 투자 필요자금 중 30억달러의 자금조달을 위해 상호 협력
- ② 반도체 산업생태계의 상생·발전을 위해 1,000억원 규모의 '소부장 반도체 펀드'를 '21년중 조성

* '21년 중 총 5,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중인 소부장펀드 중 1,000억원을 '소부장 반도체 펀드'로 운영 →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·중견 소부장 기업에 투자

1 행사 개요

- 1월 19일(화) 15시, SK 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·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」이 개최되었습니다.
- 동 협약식은 SK하이닉스와 '해외 M&A·투자 공동지원 협의회'* 소속 금융기관(산업은행·수출입은행·농협은행) 간에,
 - * 산업계(대한상의, 중견기업연합회, 중기중앙회 등)와 금융권(산은, 수은, 농협 등)간 해외 M&A·투자자금 조달 등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('19.9월 출범)
 - 글로벌 미래투자 필요자금 조달 및 소부장 반도체 펀드 조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<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·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 개요 >

- (일시 / 장소) '21.1.19.(화) 15:00~16:10 / SK 하이닉스 이천캠퍼스
- (참석자) 금융위원장, SK하이닉스,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농협은행, 대한상공회의소 등
- (목적) SK 하이닉스 - 금융기관(산은, 수은, 농협은행) 간 협력프로그램 체결

2 협약 주요내용 및 의의

- ①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미래 투자와 관련하여, 협약 당사자 (SK하이닉스·산은·수은·농협은행)는 5년('21~'25년)간 총 30억 달러 상당의 자금조달을 위해 상호 협력합니다.

⇒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,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② '21년중 1,000억원 규모의 '소부장 반도체 펀드'가 조성됩니다.

-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, '20년중 총 4,000억원 규모 '소부장 펀드' 조성'에 이어, '21년중 총 5,000억원 규모의 펀드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*한 바 있습니다.

* '21년도 금융위원회 예산확정 관련 금융위 보도자료('20.12.2일) 등

- 이번 협약식에서는, 협약 당사자의 출연*을 통해 5,000억원 규모 펀드 중 1,000억원을 반도체 산업 중소·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'소부장 반도체 펀드'로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
* SK하이닉스 300억원 + 산업은행 100억원 + 수출입은행 100억원

⇒ 중소·중견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3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내용 ☞ 별첨 : 은성수 금융위원장 축사 전문

-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'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후 첫 현장행보로서 참석한 금번 협약식에 대한 축사를 통해,
- 전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우리는 위기에 강한 국가와 국민임을 재확인하고 있으나,

- 위기로부터의 ‘회복’으로는 충분하지 않고,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발언하는 한편,
- ①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, ②산업생태계가 함께 가는 상생 발전이 절실하고, ③금융권도 변화하는 기업자금 수요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.
-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협약식은 매우 뜻깊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정부도 이러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,

- ① ‘21년중 최대 4조원을 목표로 하는 뉴딜펀드 자펀드 구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로 투입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하고 있으며,
- ②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하고,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,
- ③ ‘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’ 발굴 및 금융지원 등 과거 실적·담보보다는 미래성장성·기술력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.

< 별첨 > 은성수 금융위원장 축사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<small>일반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